

1980년 5월 • 광주민중항쟁기록 사진집

인권정보자료실
CPb1.18

오월 光卍

광주민중항쟁기록 사진집



오월 光卍

광주민중항쟁기록 사진집

오월 光卍

천주교 광주대교구

인권정보자료실
CPb1.18

B2-3-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이책을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간
5.18 광주 민주 영령과 그날의 아픔을 딛고
굳게서서 큰 빛을 발하는 광주시민들에게 바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아 아,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여

김 준 태 · 시인

1. 아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파 묻혔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은
또 어디에서 입을 벌린채 누워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하느님도 새메들도
떠나가 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죽음으로써 죽음을 물리치고
죽음으로써 삶을 찾으려 했던

아 아, 통곡뿐인 남도의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2. 해와 달이 곤두박질치고

이 시대의 모든 산맥들이
엉터리로 우뚝 솟아있을 때
그러나 그 누구도 찢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아 아, 자유의 깃발이여
인간의 깃발이여
살과 뼈로 응어리진 깃발이여

아 아,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노래와 꿈과 사랑이
때로는 파도처럼 밀리고
때로는 무덤만 뒤집어 쓸 지언정

아 아, 광주여 광주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등산을 넘어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는

아 아, 온 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정말 우리는 죽어 버렸나
더 이상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 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 버렸나

3. 충장로에서 금남로에서 화정동에서 산수동에서 용봉동에서 지산동에서 양동에서 계림동에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아 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속절없는 세월의 흐름이여

아 아,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가
뉘를 잃고 밥그릇조차 대하기
어렵구나 무섭구나
무서워서 어찌지도 못 하는구나

(여보, 당신을 기다리다가
문밖에 나가 당신을 기다리다가
나는 죽었어요……

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갔을까요
아니 당신의 전부를 빼앗아 갔을까요
셋방살이 신세였지만
얼마나 우리는 행복했어요
난 당신에게 잘 해주고 싶었어요

아 아, 여보!
그런데 나는 당신의 아이를 뱀 몸으로
이렇게 죽는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나에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고
나는 또 당신의 전부를
당신의 젊음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 아, 여보! 내가 결국
당신을 죽인것 인가요)

4. 아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을 뚫고 나아가 백의의 옷자락을 펼척이는 우리들의 영원한 청춘의 도시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불사조여 이 나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다시 넘어오는 이 나라의 하느님의 아들이여

예수는 한번 죽고
한번 부활하여
오늘까지 아니 언제까지 산다던가
그러나 우리들은 몇백번 죽고도
몇백번을 부활할 우리몸의 참 사랑이여

우리들의 빛이여, 영광이여, 아픔이여
지금 우리들은 더욱 살아나는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튼튼하구나
지금 우리들은 더욱

아 아, 지금 우리들은
어깨와 어깨 뼈와 뼈만 맞대고
이 나라의 무등산을 오르는구나
아 아,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을 올라
해와 달을 입마추는구나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짙어져 가는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

머 리 말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해방이후 한국 현대사에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군부독재 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함으로써 민주를 향한 운동이 구체화 되었고, 그동안 혈맹의 관계라는 명분으로 막연하게 기대를 가져왔던 미국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 민족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87년 5월, 은폐된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최초로 오월광주의 사진전을 마련한 이후 같은 해 9월 뜻있는 사람들과 사진전시 기간 중 용기있게 사진을 제공한 광주시민들의 도움으로 사진집을 발행하였으며, 이 사진집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만에 찬 무리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술책들은 역사의 진실을 흐려놓기도 하였습니다.

광주 정평위는 백주의 학살행위자들이 진정으로 역사와 국민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은 그 행위 보다는 인간을 용서하는 아름다움을 보여주어 민족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오월이 주는 교훈은 부당하게 권력을 찬탈하거나 불의한 체제를 영속화 하려는 독재자들, 그리고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국민들을 억압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침해하는 권력자들이 있을 때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드러난 사회의 모순들이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극복되고 정리될 때만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역사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며, 오월정신이 다음 세대에 올바르게 계승,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더우기 광주시민들이 남다르게 바친 고귀한 제물은 결코 뜻없는 희생일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승리'라는 크리스찬 복음의 원리는 분명히 구현되고야 말 것이며, 민족적인 사랑과 연대를 더욱 굳세게 만들 것입니다.

아직도 진상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살과 발포의 명령자들이 백주의 대로를 활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어설픈 보상과 외형적 기념사업만으로는 진실을 호도하고 왜곡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감추어진 진실을 찾아 밝히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사진집 제작을 위해 기꺼이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라나는 후세대들과 국민 모두에게 그날의 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발행합니다.

1995년 5월, 광주민중항쟁 15주년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오월은 싱그럽고 아름다운 달이다.

그러나 80년 5월은 6.25이후 가장 참혹한 민족사의 비극이 일어났던 대 참변의 달이다. 국토 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띤 국군과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동족의 유혈충돌로 빚어진 엄청난 광주사태가 바로 그것이다. 전라도민은 물론 양식있는 전 국민들의 비통을 자아내게 하는 이 사태는 비상 계엄이라는 너울 속에 정부 당국의 거짓된 발표와 통제된 언론의 편양보도로 인하여 철저히 왜곡되고 있음을 광주시민은 잘 알고 있으며 오도된 국민으로부터 자업자득이었다는 비난과 함께 질시의 눈초리를 당하고 있다. 거짓은 폭로되고 진실은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양심과 신앙의 충동에 따라 사태의 진상을 전 국민 앞에 발표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 사태로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한맺힌 광주 시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전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한다.

평화적인 학생 데모

비상 계엄이 확대 실시되기 전까지 광주시 대학가는 교내 시국 성토대회를 벌리다가 (민주화 시국성회)를 갖기 위해 전남 도청앞 분수대에 모였으며, 이후 전남대를 비롯하여 10개의 대학전문 학생 3만여명이 대규모 집회 및 촛불 행렬로 시위를 벌였다. 많은 학생 데모였지만 평화적인 것이었고 경찰과의 충돌조차 없었으며, 질서 정연하게 민주화를 추구하는 의사 전 달식이었다. 학생들은 이 집회로써 그동안의 시위를 끝내고 정부 당국의 성의있는 답을 기다리며 수업에 전념할 것을 결의 하였다. 이 평화적인 시위가 왜 참담한 실육이 자행되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으로 돌변하고 말았을까? 그 진범은 누구일까?

공수 특전단의 만행

만일의 휴교 조치에 대비하여 학교 앞에 모이기로 사전 합의한 전남대생들은 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되고 데모 주동 학생들이 체포되던 5월 18일 아침 교내로 들어 가려다가 총을 든 군인들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투석전을 벌였다. 계엄군에게 쫓겨난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 나와 연좌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최루탄과 경찰봉으로 해산시키려 하자 다시 투석전이 벌어졌다. 경찰력으로 진압이 실패되자 오후 3시경 공수 부대를 투입시켰다. 착검한 M16에 방망이로 무장한 공수 대원들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남·여학생들 붙잡아 방망이를 휘둘러 마구 난타했다. 뒷통수를 맞

고 피를 낭자하게 흘리며 쓰러진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보도블럭을 깨서 돌을 만들어 집어 던졌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데도 붙잡혀온 학생들에게 군화발로 짓밟거나 기합을 주었으며, 심지어는 다시 방망이를 휘둘렀다. 반항하는 경우 M16에 쫓은 칼(대검)으로 등과 허벅지를 사정없이 찔러 그었다. 피흘리는 학생들을 굴비처럼 엮어 군인 트럭에 싣고 갔으며, 통금이 밤 9시로 단축된 것이 발표되자 귀가하는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까지 무조건 두들겨 패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는 시민들까지 개머리판으로 마구 때렸다.

다음날(19일), 시내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술렁대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금남로 일대에 이루 셀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들었으며, 이날 아침 몇명되지 않는 공수부대원들은 어제와는 달리 모여드는 학생과 시민들을 쫓았다. 그러다가 데모 학생들이 몰려들자 붙잡아 옷을 벗기어 길거리에 꿰어 앉혔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학생들을 계속 구타했다. 공수대의 잔인성을 직접 목격한 군중들은 울분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가택 수색까지 해가며 학생들을 붙잡아 갔고, 언어 맞아 택시에 실려가는 학생들까지도 차에서 끌어 내려 두들겼으며, 심지어는 운전수들까지도 두들겨 패다. 흥분된 시민들이 합세하기 시작하자 남녀노소를 구별치 않고 구타하거나 대검으로 난자했다. 칼로 옆구리가 찔린 학생과 등이 X자로 그어있는 시체가 추후에 확인되었다. 이때 체포된 학생수가 927명이라고 계엄사는 발표했다. 양 이틀간의 무자비한 공수대의 만행은 많은 시민을 데모에 가담케 했으며, 군중의 분노를 가열케 했다.

데모대의 무장 경위

공수대의 만행과 체포가 그치지 시민들이 가족을 찾아 각 병원 응급실, 시체실을 메웠다. 그런데도 계엄사는 20일 민간인 사망자 1명, 계엄군 사망자 4명이라고 발표하여 시민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일부 시민들은 공수대원들의 무차별 만행에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시내 버스, 택시 운전사들이 차를 몰아 도청을 최후의 저지선으로 지키고 있는 군경을 향해 돌진해 갔다가 최

루탄에 의해 밀려났다. 수만명의 학생과 시민들로 차도와 인도가 가득 찼고 시민들은 함성과 시위를 벌였다. 아세아 공장에서 납품하려던 장갑차와 군용 썰과 트럭을 빼앗아 계엄군을 향해 시민들이 함께 나아가다가 연이은 총성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쓰러졌다. 여러대의 헬기가 상공을 배회했고 사상자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남의대를 비롯한 3개의 종합병원, 182개의 개인병원으로 총상자들이 분산되어 응급치료를 받았다. 총소리에 쫓겨 놀란 시민들은 뿔뿔히 흩어지기 시작했고 숨을 곳을 찾아 나서자 거리는 텅 비어 버렸다.

맨 주먹으로 대항하던 시민들은 이에 대항할 무기의 필요성을 깨달아 화순을 비롯한 인근 경찰서에 들어가 경찰 예비군용 총기, 실탄, 수류탄, 화순탄광에서 사용하는 티.엔.티를 빼앗아 시내로 모이자 시가지는 완전 전쟁상태로 돌변했다. 총을 든 시민들에 의해 계엄군은 외곽으로 퇴각했으며 이때도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밤새껏 쉬지않고 총소리가 났으며 밤에는 도청이 데모 군중에 의해 점거당했다.

도청철수 이후의 광주 상황

학생들 스스로 시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 점거된 도청이 학생들의 임시 본부가 되자 도청앞 광장과 금남로 시가는 인파로 물렸으며 다시 질서있게 “시민 권기대회”를 가지며, ‘계엄 철폐’,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구속자 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종교계, 학생대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수습 위원회가 스스로 구성되었다. 수습위원들은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하여 계엄군의 시내진입을 양했다는 약속을 받고 무기 수거에 나섰다. 시민과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 신임 박 총리는 광주 상공을 헬기로 정찰하고 계엄사 전남북 본부에 만 들려 상황을 청취한 뒤 일방적인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여 시민을 경악케 했다. 수습 위원들의 활동으로 총기와 실탄이 상당수 회수되었다. 수습 위원회가 요구 조건을 내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본적인 수습을 위해 최태통령이 광주 사태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앞에 사과하고 보상과 추후 정치적 보복을 없앨 것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공개천명토록 요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사이 계엄사는 약속을 어기고 시내 무장 진주를 시도하자 학생들은 수거한 무기를 다시 분배 무장했다. 계엄군이 진주할 경우 시가지가 피로 물들 사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수습 위원들은 비폭력의 죽음으로 항거하자고 결의하여 탱크 앞까지 죽음의 행진을 했다. 계엄군이 양보하여 퇴진했고 계엄사와 수습위원이 다시 회동했다.

사태 수습이 사령관의 권한 밖임을 암시받자 수습대변인이 대통령 면담을 위해 서울로 떠났다. 유혈사태를 우려하던 수습 위원들의 인내와 수고가 무시된 채, 5월 27일 새벽 2시 섬광탄을 쏘고 총격전이 전개되어 유혈이 흐르는 가운데 계엄군이 다시 시가지를 장악했다. 계엄사는 이날 유혈진압에 17명의 사망자 뿐이라고 했지만 섬광탄에 희생되거나 총상을 입어 사망한 수는 새벽녘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계엄군의 성급한 진군으로 유혈진압이 되어버린 것이다. 피를 부르며 시가지를 장악한 계엄군은 마치 적진을 탈환한 것 같은 승리감에 차 있었다고 아시아 신문은 전했다. 피를 머금은 땅은 흔적이 없듯이 열흘동안의 민주화를 부르짖던 함성도 흔적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광주사태에 대한 민주 시민의 긍지를 역사가 평가 하여 줄 때가 오리라 믿는다.

폭도는 누구인가?

사태가 수습되었다는 당국의 발표를 듣고 ‘폭도’, ‘난동자’, ‘불순분자’, ‘극렬분자’에 의해 파괴 되었을 법한 광주시를 찾아온 외래객들은 너무나도 평온한 시내의 분위기에 의아심을 갖는다. 파괴로 휩쓸린 도시가 아닌 것을 목격하기 때문이다. 사태중 광주 MBC, KBS, CBS 방송국들과 두 개의 신문사는 사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과 메스콤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사상자 수에 대한 허위 보도, 시민들을 무장폭도 및 난동자로 규정하였으므로 시민들의 분노를 사 파괴 및 방화되었다. 많은 총기가 탈취 당했는데도 몇건의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은행 강도도 없고 전기 수도가 공급된 것은 시민의 수준이 높은 증거라는 외신기자의 말에 공감을 느낀다. 남녀 대학생들이 치안대를 조직하여 은행과 농협 쌀 창고를 지켰으며, 일부 지각없는 청년들의 횡포를 신속 정확하게 막았다 한다. 광주 경찰서 현관과 벽에는

“본 경찰서는 우리의 재산. 기물 파괴는 세금의 과중 스스로 보호함시다. 학생 일동”이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계엄군이 외부와 통신 교통을 차단시켜 생필품과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가운데도 매점 매석 행위나 폭리를 취하는 자가 없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사태 속에서도 서로 식량을 나누어 먹었고, 총상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하여 피가 부족하게 되자 헌혈하는 시민들의 수가 무한히 늘어서 지금도 헌혈 받은 피들이 남아 돌고있다. 부녀자들은 데모 대원들에게 스스로 음식과 약품을 제공했고 배고파 하는 계엄군들에게도 미음을 잊은 채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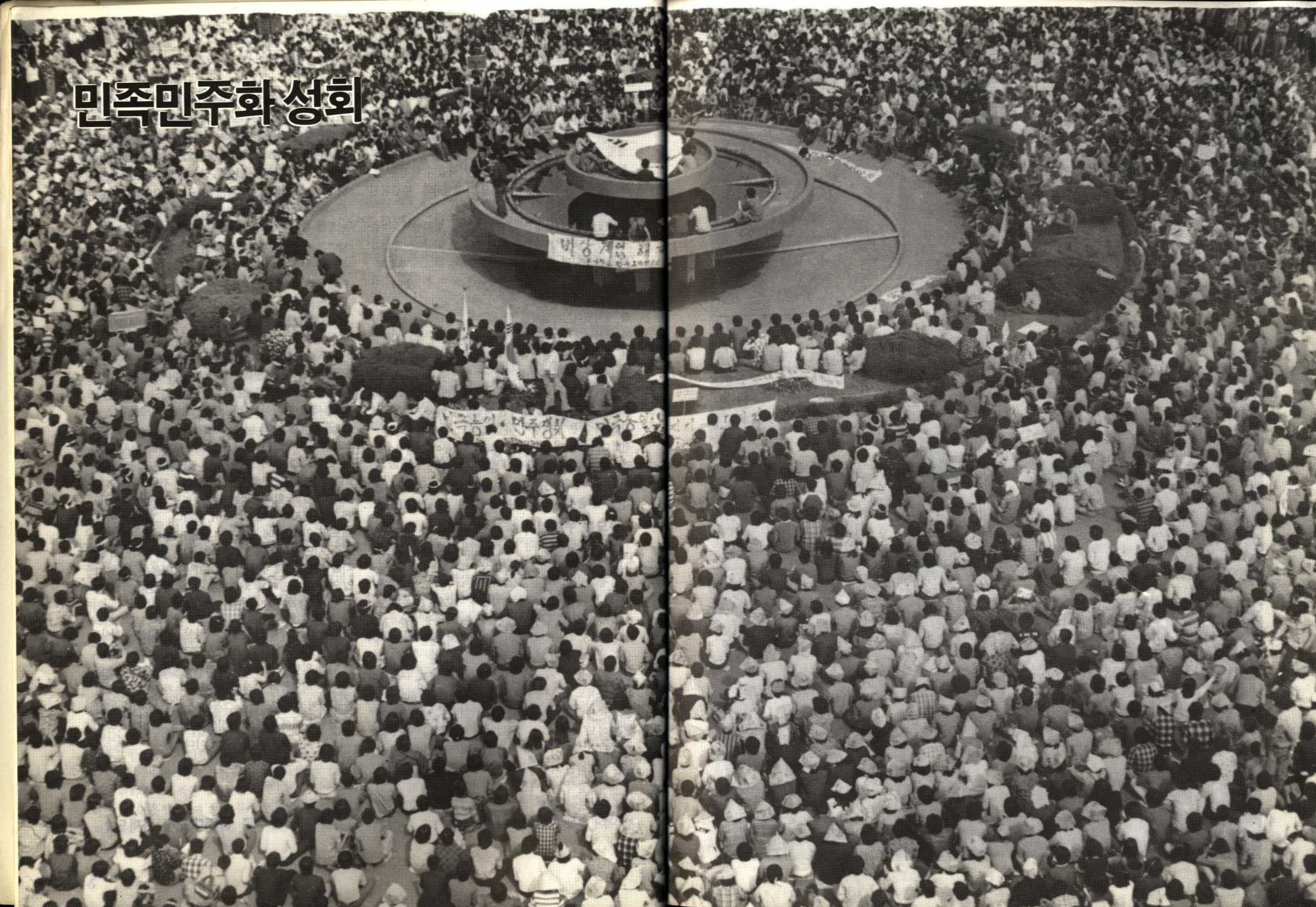
사건의 전모가 발표되지 않았으나 3명의 간첩협약자를 잡았다. 소위 치안부재의 10일, 곳곳에 흩어진 돌맹이, 유리, 최루탄 파편을 쓸어내는 시민들, 총격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운반 간호했던 의사, 간호원들, 생명을 내어 맡기며 젊은이를 보호했던 운전사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선량했던 세칭 부랑아와 버림받은 이들, 방망이를 휘둘 공수대원 앞에 너무나 쉽게 쉽게 울어버린 어느 아낙의 따스한 마음, 파괴와 방화를 하지 말라며 만류하던 우리 모든 광주 시민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폭도들의 짓이 아니다. 저들이 불순분자라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불순분자와 폭도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연행, 체포의 위협 속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광주 시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민주시민의 긍지를 마음 속에 갖지만 응어리진 마음은 풀리지 않은채 이재민에게 처럼 보내지는 구호품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며 외면하고 있다.

군은 이상과 같은 한국 근래사상 유래없는 유혈사태를 유발하여 놓고 그 책임을 광주 시민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체의 보도를 통제하고 사실을 은폐 함으로써 광주 시민들과 우리 국민 전체의 가슴에 피맺힌 한을 남겨 놓았다. 더욱 그들이 스스로 저지른 잔인한 난행에 대해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198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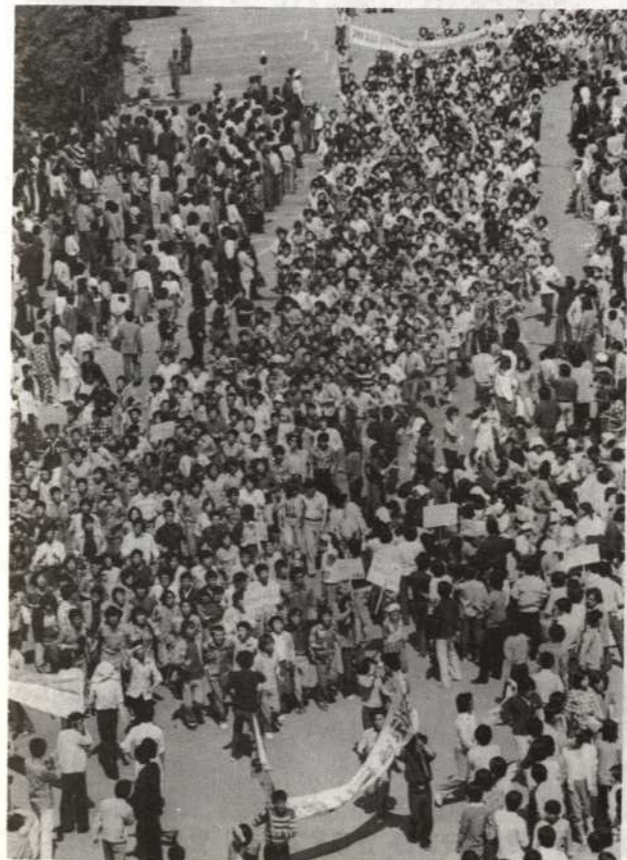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단

민족민주화 성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억눌러 오던 유신정권이 10.26으로 종말을 고한 후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의지는 불같이 솟아올랐다. 12.12 사태로 군강경파는 군을 재편하고 전국적으로 열기를 더해가는 학생, 노동자, 재야인사들의 민주화 요구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려는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 중에 있었다.



5.17 이전까지 광주시내 대학가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각 대학별로 교내 시국성토대회가 있었고, 전남 도청 앞 분수대에서는 「민주화시국성토대회」를 가졌다. 이후 전남대를 비롯한 10개의 대학, 전문대학 3만여명이 대규모 집회와 촛불행진으로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인 것이었고, 경찰과의 충돌조차 없었으며 질서정연하게 민주화를 촉구하는 의사 전달식이었다.



「민족민주화성회」를 위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집결한 뒤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도청 앞으로 향하였다.



교수단시위

도청앞 분수대에서 「민족민주화성회」가 끝난 뒤에 각 학교로 돌아갈 때에는 대형 태극기 뒤에 50여명의 교수들이 함께 행진하고, 뒤이어 학생들이 열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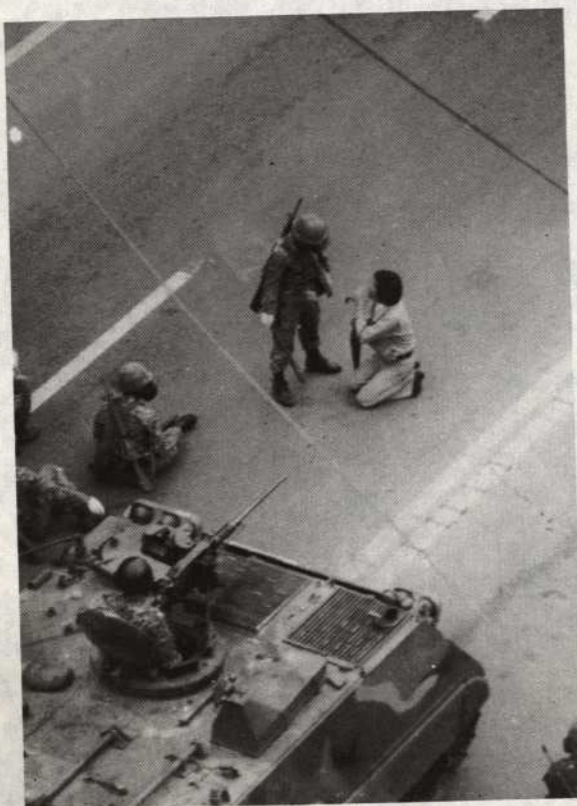
5월 16일 「촛불대행진」은 유신독재로 얼룩진 저 19년간의 암흑을 민주화의 대중적 촛불로 밝히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적 시위였다. 학생들은 「촛불대행진」으로 그동안의 시위를 끝내고 당분간 학업에 전념하여 당국의 성의있는 답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24시간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군강경파는 비상계엄확대 선포를 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과 민주인사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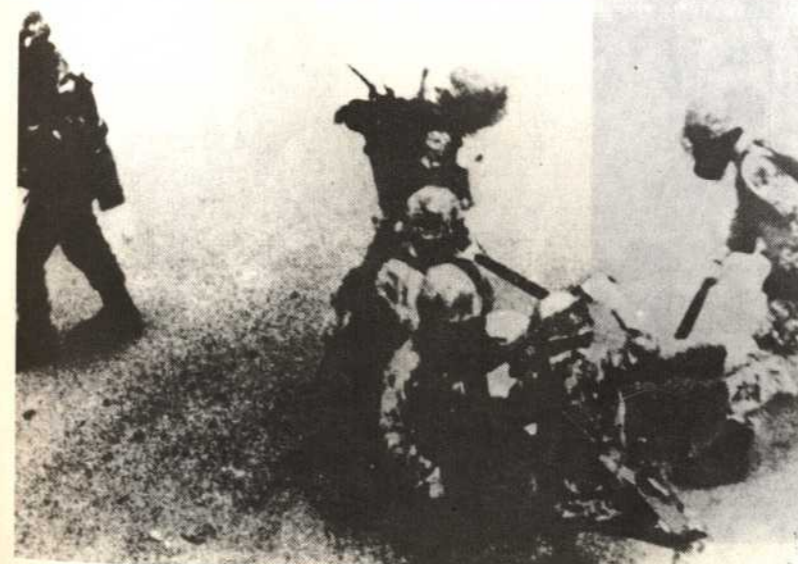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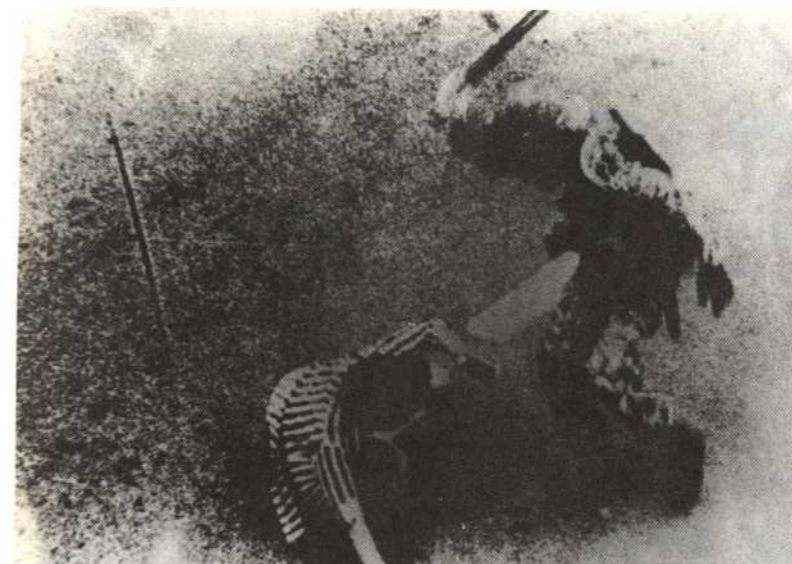
학살

공수부대가 진입했다. 일부는 이미 주요지역에 배치되었고 나머지는 수창국민학교에 도열하여 작전지시를 받고 있었다. 「화려한휴가」라고 명명된 광주시민 학살작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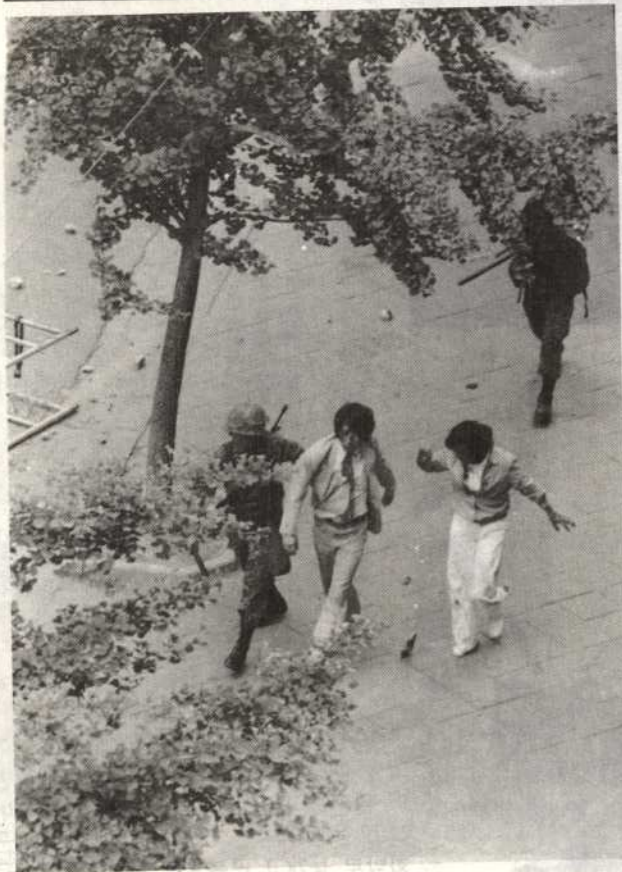




무고한 시민을 무차별 연행하는 것이 공수대원들의 임무였다. 집집마다 수색하였고, 시위하다 쫓겨 도망하는 자는 한사람도 놓치지 말라는 명령에 충실하였다.



시위학생을 잡으면 먼저 곤봉으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서너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군화발로 머리통을 으깨버리고 등과 척추를 짓이겼으며 얼굴을 군화발로 뭉개고 곤봉으로 쳐서 피 곤죽을 만들었다.



남편은 코피를 손수건으로 막으며 공수대원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부인도 손과 옷에 피를 묻힌 채 안타깝게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짐승이었다.



이런 군대는 필요치 않다. 주민을 몰라보는 미친 군대는 없어야 한다. 누가 이 군인들을 미치게 했는가, 국민을 살상하라고 명령한 원흉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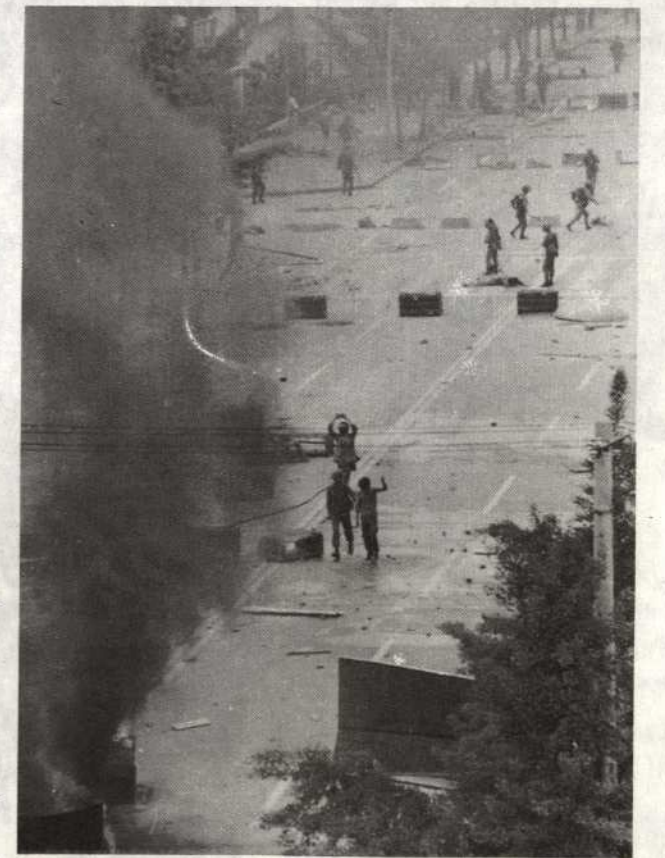


인간사냥이 시작되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들은 가차없이 대검으로 배를 쑤셨다. 잡혀 온 젊은이들을 한 곳으로 모아 팬티만 걸친 채 마구잡이로 트럭에 실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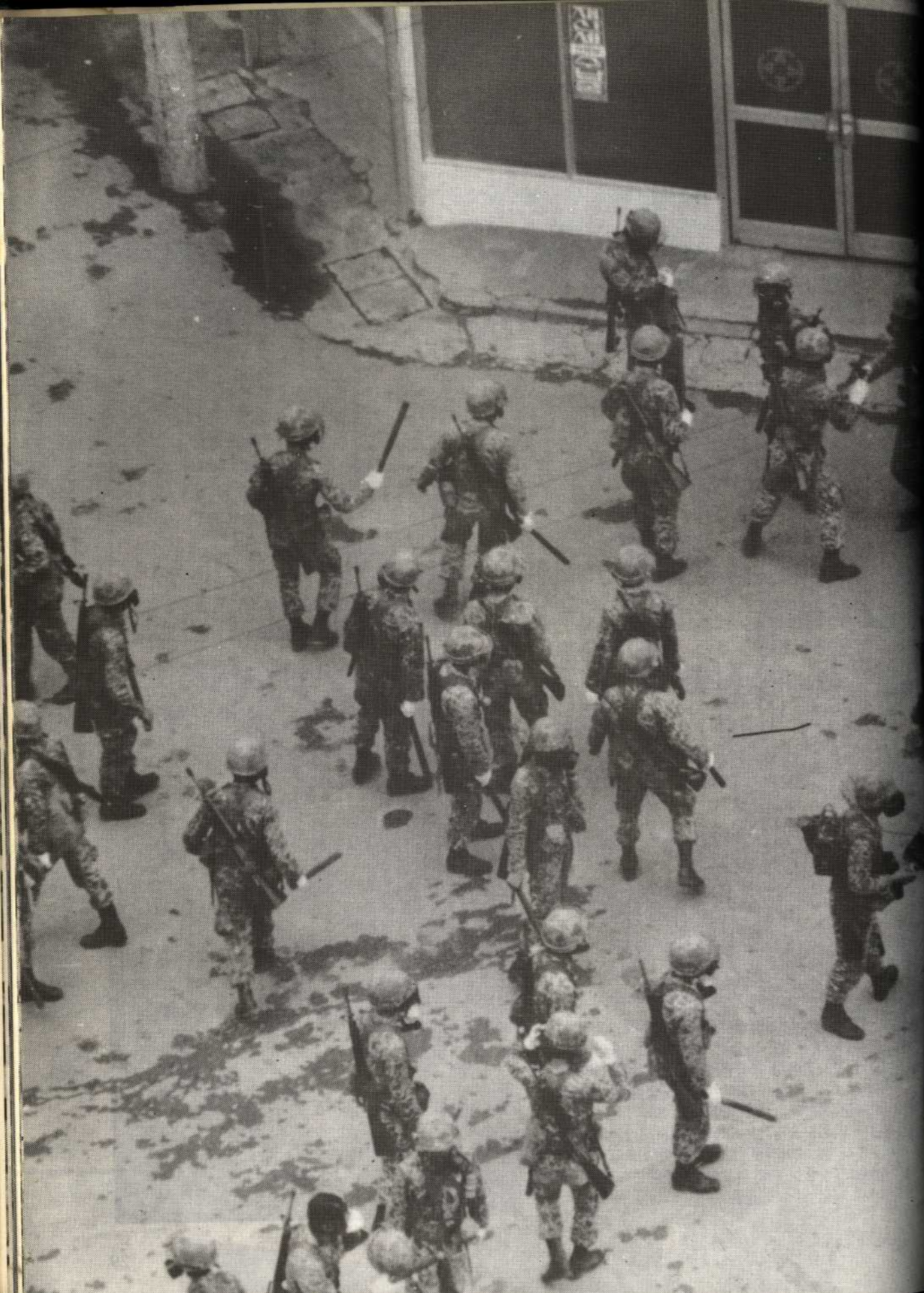
숫구치는 분노의 불길

도시 전체에 심장이 멎을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시민들 내부에서는 침묵함과 분노의 불길들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모든 시민들은 금남로를 향하여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은 서로 피해자로서의 동질감을 확인하면서 군경의 저지선을 분노의 눈길로 노려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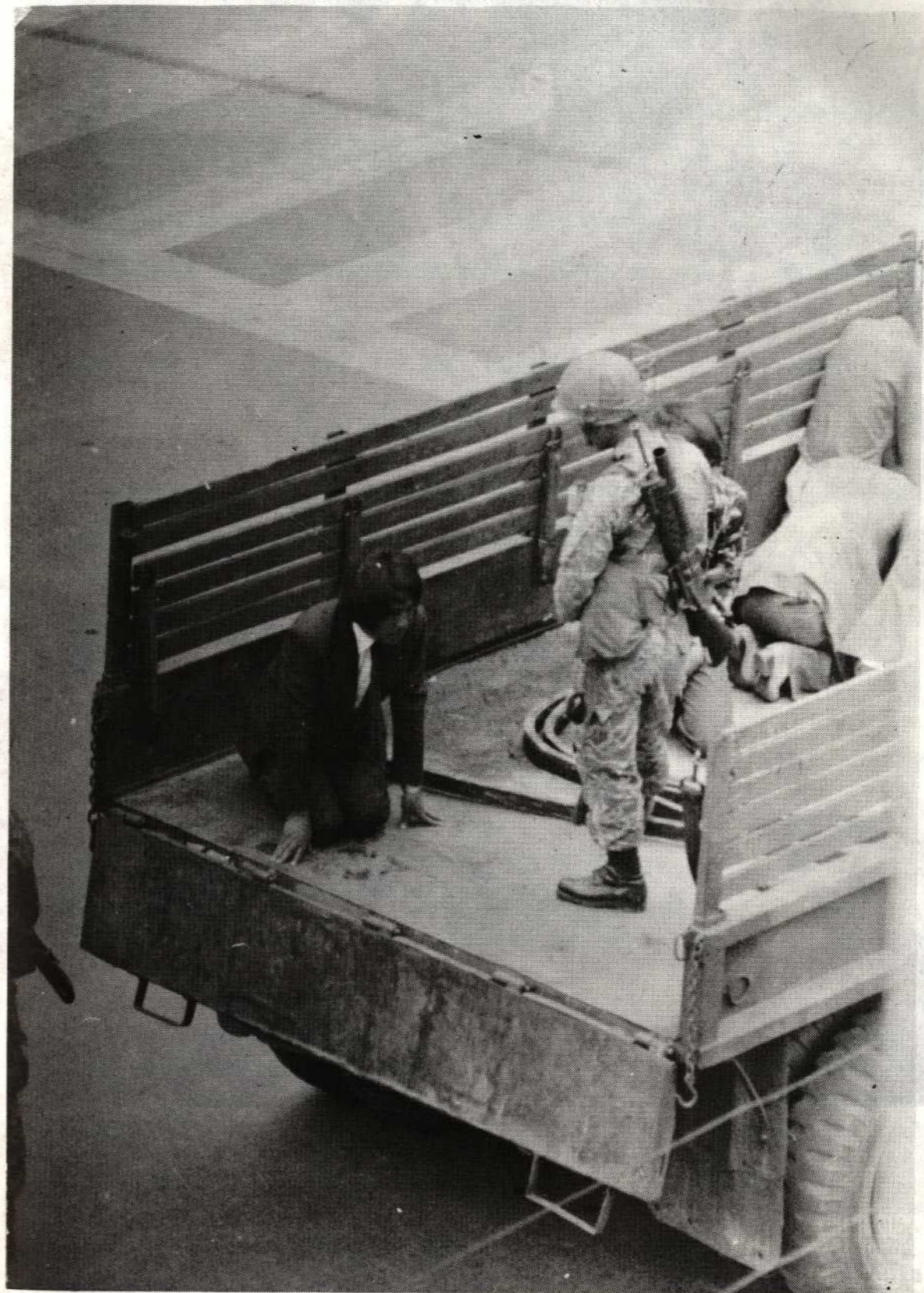


군중은 차츰 격렬해지고 있었다. 청년들이 블럭을 깨어서 투석을 시작했고 시민들은 중앙로 지하상가 공사장에서 각목을 가져다 자체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군용트럭 30여대에 분승한 공수부대가 시위군중을 포위, 압축하기 시작했다. 공수대의 진압은 시위군중의 불안감을 넘어서 잔인성을 보였다. 곤봉과 총 개머리판, 대검으로 휘두르고 찌르면서 시위대의 중심부로 파고 든 공수대는 그들의 군복마저 피로 벌겍게 물들였다.





잡힌 사람들은 팬티만 입고 알몸으로 화염병 조각과 돌 조각이 날려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손을 뒤로 묶인 채 옆드려서 아랫배로만 기어가게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혔다.





수천명의 젊은이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잡혀갔다. 이성을 잃어버린 공수대원들은 다방에서 차를 마시다가, 시대를 걸어다니다가, 심지어는 지나가는 버스를 세워 젊은 사람들을 끌어내렸다. 크리고는 기증스러운 폭행을 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노인들에게는 무차별 곤봉과 대검을 이용한 구타가 행해졌다.



오전에 벌어졌던 공수대의 살육만행을 똑똑히 보고 겪었던 시민들은
 치를 떨면서, 이젠 누구든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접 싸워서 저
 들을 광주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그것은 광주시민
 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



이미 학생시위 정도의 치열성으로는 도저히 공수대의 잔혹성에 대항할 수 없게 된 것을 질실하게 느낀 군중들은,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면서 과감해지고 있었다. 돌과 화염병, 최루가스와 경찰의 계속되는 해산명령의 방송소리가 저지선 앞에서 어지럽게 교차하였다.



공수대들은 달아나는 시위대열의 후미를 계속 유린하면서 끝까지 추격했다. 잡힌 청년을 발가벗기고 공수대 여럿이서 곤봉으로 난타질했다. 처음에는 비명이 들리더니 얼굴이 피 곤죽이 되어버린 청년은 축 늘어져 버렸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갔나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서
어디에 파묻혔나
우리들의 혼백은
또 어디에서
찢어져 산산이 조각나 버렸나



계엄군이 공식적으로 발포하기 전
21일 오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발견된
시체는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살해되
어 버려졌던 것이었다. 이제 시민들
의 분노는 자기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극에 달하였다.



하느님도 새떼들도
떠나가버린 광주여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아아, 온 몸에 상처뿐인
죽음뿐인 하느님의 아들이여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남아
쓰러지고, 엎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피투성이 도시여





아아, 우리들의 피와
살덩이를
삼키고 불어오는 바람이여
아아 통곡뿐인 남도의
꿈이여 십자가여



정말 우리는 죽어버렸나
더 이상 이나라를 사랑할 수 없이
더 이상 우리들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없이
죽어버렸나
정말 우리들은 아주 죽어버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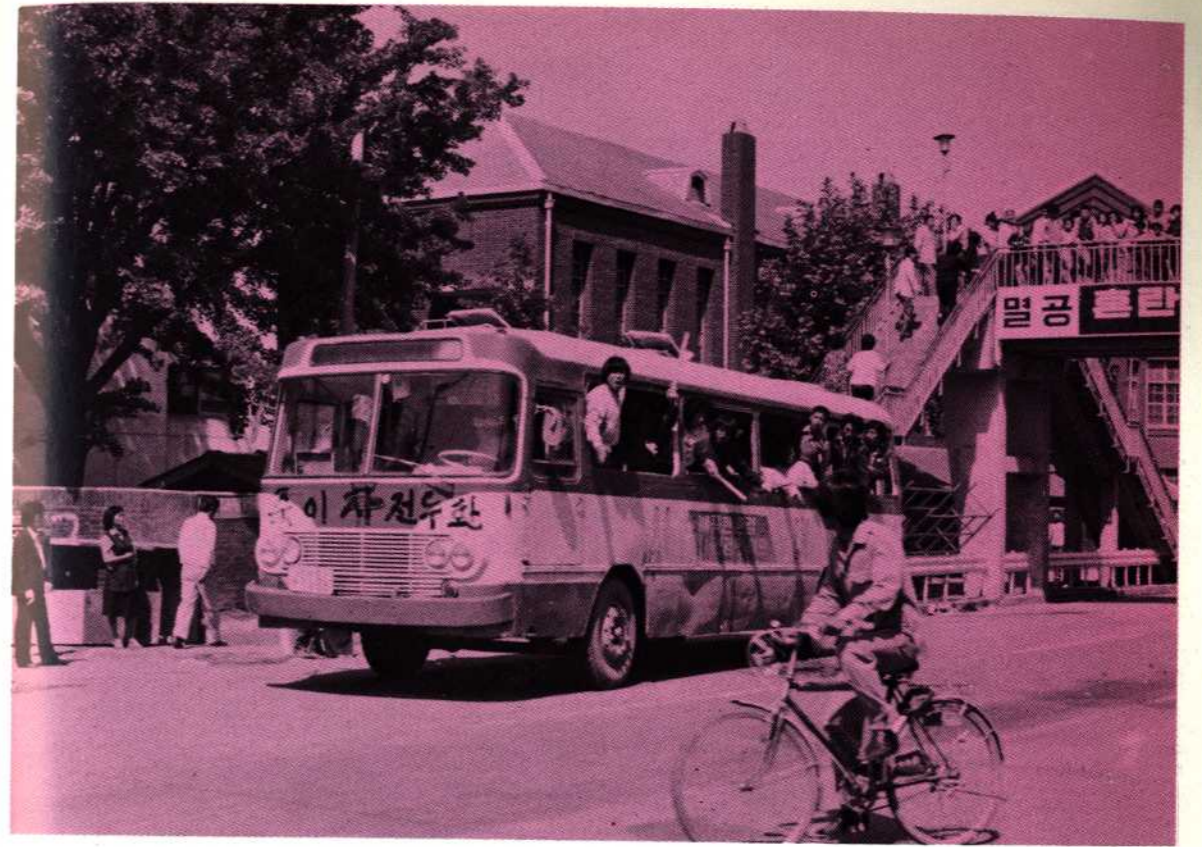
시신 속에서 뽑아 낸 총알들, 당시 계엄군들이 사용했던 총알 중에는 전쟁 중에도 사용이 금지된 납탄 총알이 발견되었다.

가자, 도청을 향해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으로 싣고 가는 차를 정지시키고, 폭도를 빼돌린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대검으로 찌르기도 했다. 광주 시내 택시 기사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여 전부 모여서 들고 일어나자고 결정하였다.



시내 곳곳에서 공수대의 살상 만행이 폭로되었다. 시민들은 서로 연대감을 갖고 광주를 수호하기 위하여 금남로로 금남로로 집결하였다.



아세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 내 줄 수 없다고 버티던 공장 책임자가
 시민들의 설득으로 대형버스, 장갑차, 군용트럭, 민간용트럭 군 APC
 장갑차를 내주었다. 시위대는 항쟁기간을 통해 약 600여대의 차량을 징
 발, 운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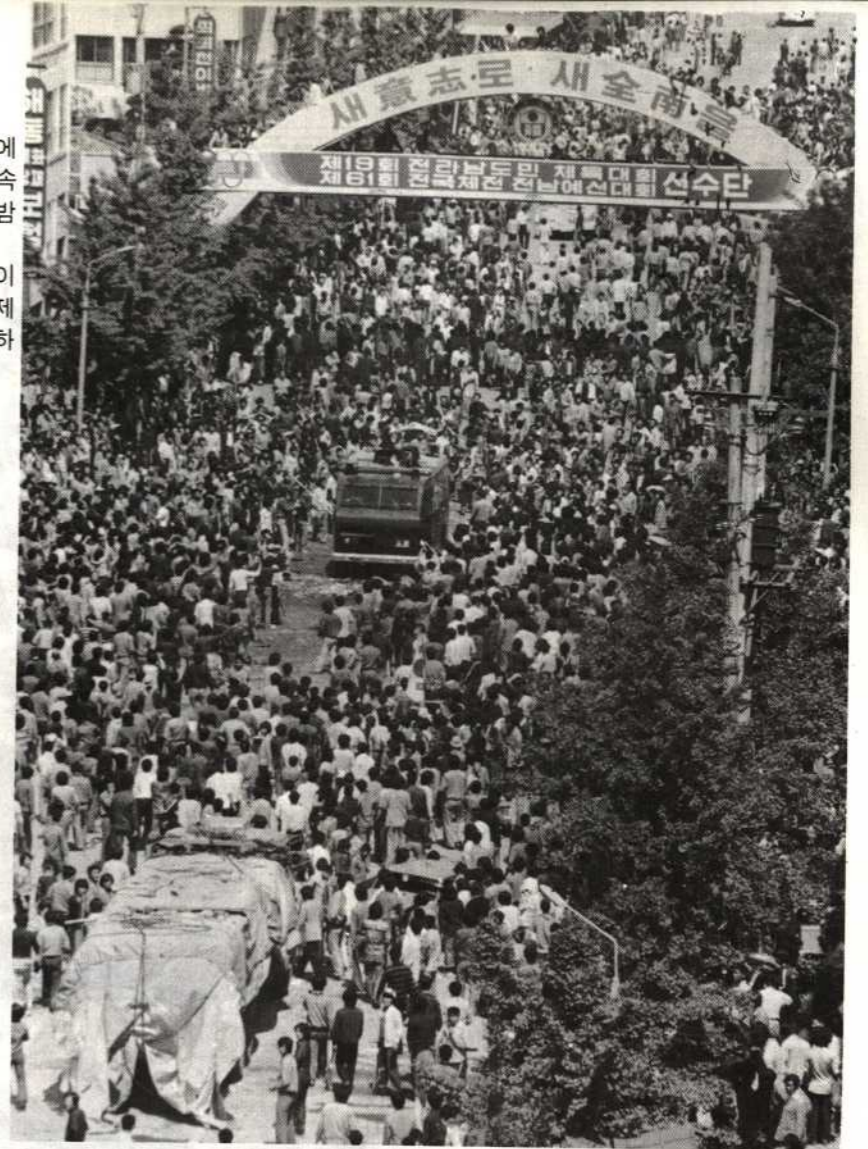
시민들의 일부는 차량에 올라타고 시 외곽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시내 부분으로 집결시켰다. 공수대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밀려드는 시위대의 필사적인 공격은 계속되었다.



군중들은 외쳤다. "세금은 다같이 잘 살자고 내는 것이지. 제 국민을 죽이라고 낸 것은 아니다!" 시민들은 세무서 정문을 박차고 들어가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고 나서 불을 질렀다.

지척의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방송뉴스에는 단 한마디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언론에 대한 분노는 공수대에 대한 것 못지않게 타올랐다. 분노에 찬 시민들이 MBC에 물러가 공정보도를 요구했으나 묵묵무답이었다. 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잠시 후 MBC는 불길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차에 탄 채로 시가 행진에 들어갔다. 행진 도중에 차량은 계속 불어나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날 밤부터 새벽 4시까지 광주역과 시청, 금남로 전투는 많은 선량한 인명이 살상된 치열한 전투였고, 도청을 제외한 시내 전역에서 계엄군을 퇴각하게 하였던 결정적인 전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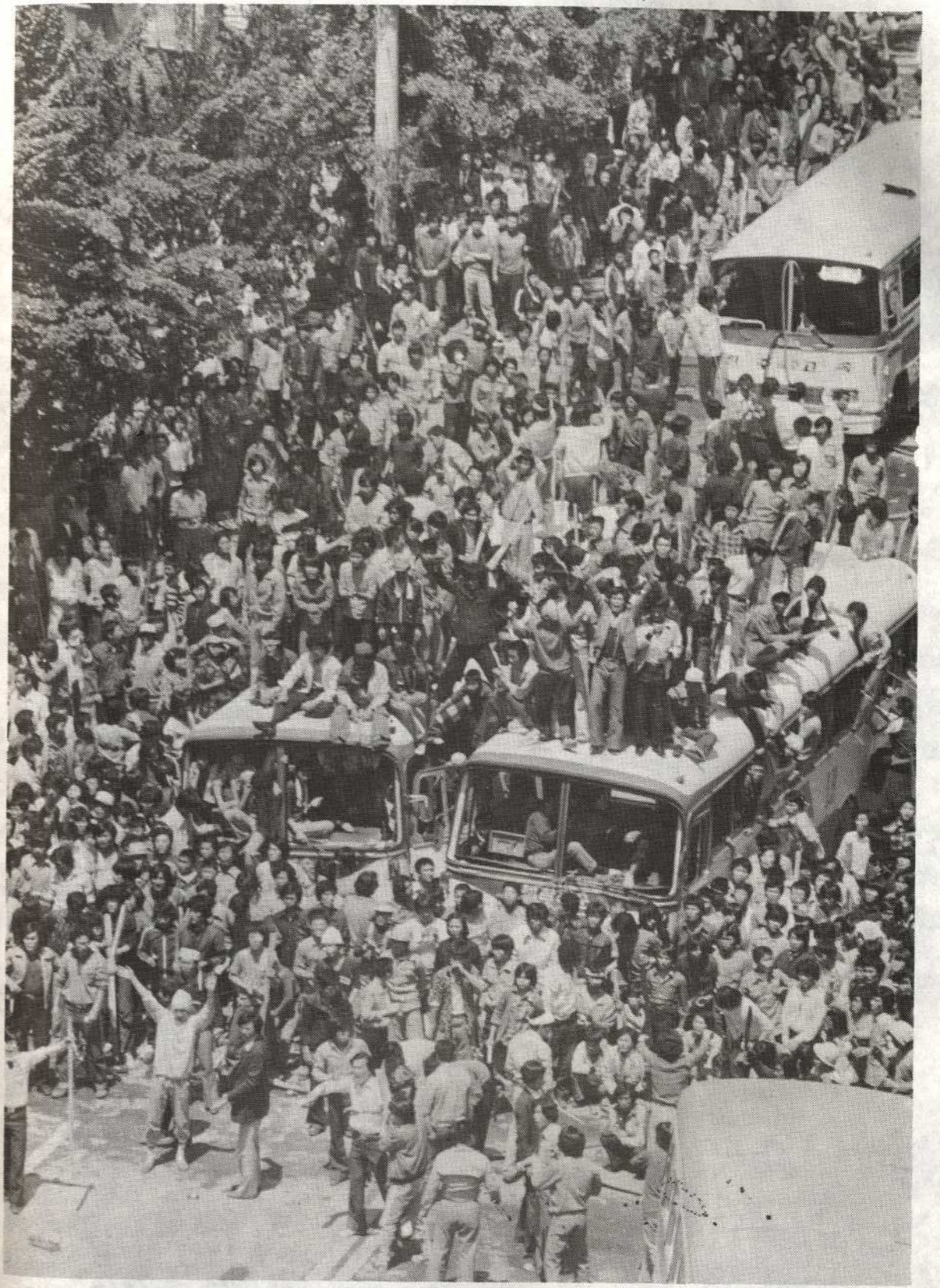




신위 깬어 죽이네



21일 새벽부터 광주에서 외부로 통하는 모든 시외전화가 「고장」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끊겼다. 외부로부터 차단된 광주시는 육지속의 섬처럼 완전히 고립된 느낌이 들었으나 시내 중심에서는 생존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피끓는 외침이 파도치고 있었다.







차량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인 뒤에 도청 저지선을 향하여 질주했다. 계엄군 전방 20여미터 쯤에서 운전하던 시민이 밖으로 뛰어 내리자 차량은 그대로 불덩이가 된 채로 돌진하여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계엄군의 저지선을 후퇴시켰다. 이와 똑같은 돌격이 몇번이나 감행되었다. 목숨을 내던진 분노의 공격이었다.



계엄군 최후의 보루였던 도청앞 금남로의 공방전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시위군중의 파도는 계엄군을 사망의 도로가운데 포위하고 차츰차츰 조여 들어갔다.



노동청과 도청, 금남로는 완전히 격전장이었다. 시민들은 도청앞을 중심으로 한 계엄군의 최후 방어선을 향하여 계속해서 투석하고 모든 차량을 동원하여 차내에다 불을 붙여 저지선으로 밀어부쳤다. 도청을 중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밀려드는 공격은 필사적이었다.